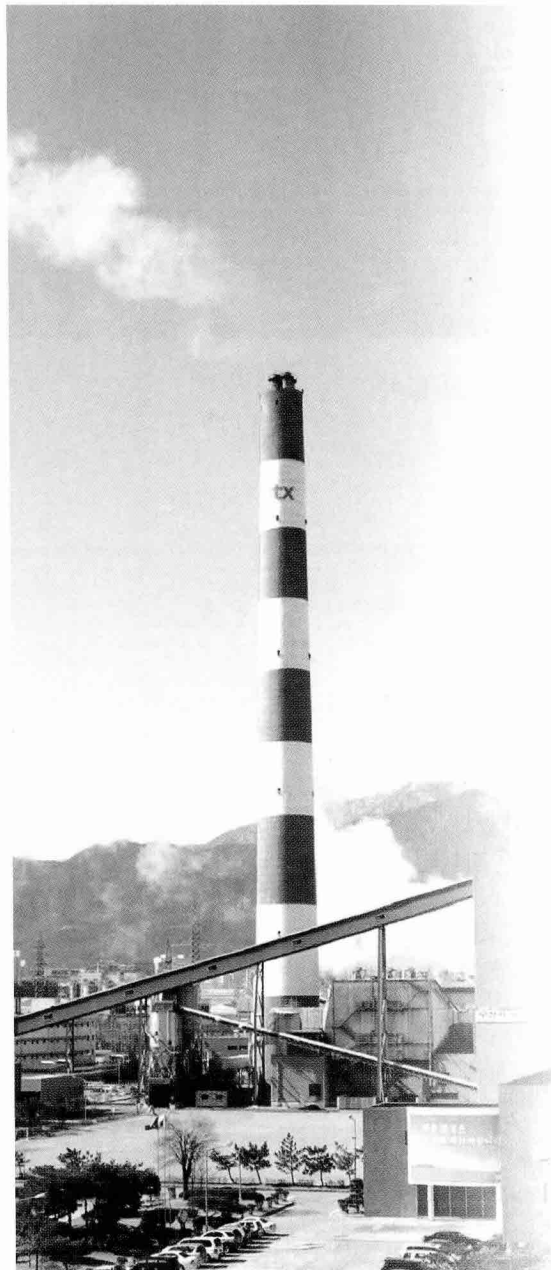


# stx 무재해 근간에는 안전평가제가 있었다



**1. 개요** 안전평가제는 무재해 목표달성을 위하여 부서간 재해 예방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팀별 안전활동 평가제도이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계기가 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 출발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 구미발전사업본부만의 안전활동 기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2. 목적** 고온, 고압 스팀을 방생시키는 사업장 특성에 의해 안전장치는 3중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스팀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수는 안전한 설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위해 인간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평가제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 계몽, 점검 등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무정지, 무사고, 무재해의 사업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3. 안전평가제 시행

#### 가. 안전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안전평가는 총무안전팀장이 주관이 되어 시행되며, 각 팀별 작업위험도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안전활동 성과에 따라 점수를 가감함으로써 분기별 1회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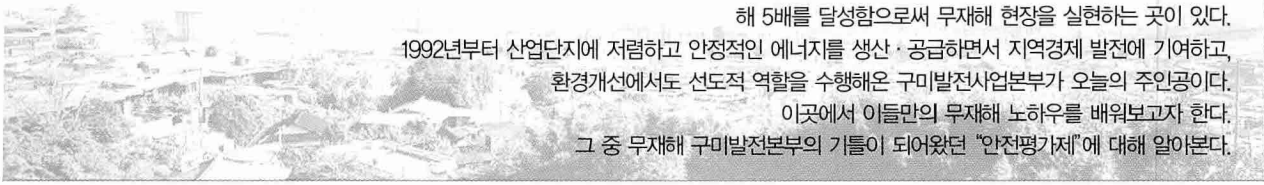
평가 점수는 팀인원에 위험할증율과 기본점수 100을 곱한 점수로 산정한다.

재해요인별	위험할증율	해당부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	2	기계팀, 전기팀, 고지팀, 발전팀, 환경팀
재해발생이 보통인 부서	1.5	효율팀, 공무팀
재해발생 요인이 낮은부서	1	총무팀

#### 나. 감점적용 범위

(1) 재해로 인한 감점

원칙, 기본을 중시여기는 기업, 창의와 도전정신 속에서 초일류를 지향하는 기업, 고객중심경영·속도 경영·기술경영을 바탕으로 World Best 에너지 전문기업이 되고 있는 STX에너지 주식회사에서 무재해 5배를 달성함으로써 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곳이 있다. 1992년부터 산업단지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개선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구미발전사업본부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곳에서 이들만의 무재해 노하우를 배워보고자 한다. 그 중 무재해 구미발전본부의 기틀이 되어왔던 "안전평가제"에 대해 알아본다.



재 해 명	감점기준	감 점
사 망	1명당	기본점수 60% 감점
중 상	요양 21인 이상(1명당)	기본점수 60점 감점
경 상	요양 8일 이상(1명당)	기본점수 40점 감점
경미상	요양 7일 이내(1명당)	기본점수 20점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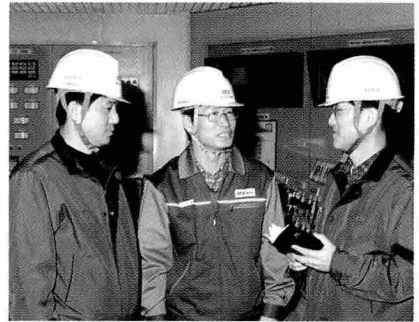
(2) 안전시정 지시로 인한 감점

감점대상	감점기준	감 점
안전시정 지시독촉	1건당	10점 감점
안전시정 지시불이행	1건당	30점 감점

(3) 개인별 감점

감점대상	감점기준	감 점
안전수칙 위반하여 벌점A 판정자	1건	10점 감점
안전수칙 위반하여 벌점B 판정자	1건	6점 감점
안전수칙 위반하여 벌점C 판정자	1건	3점 감점

※ 벌점A : 중대한 안전위반사항  
 벌점B : 경미한 안전위반사항  
 벌점C : 일반적 위반사항




다. 안전평가 결과

총무팀은 안전활동 및 지적사항을 평가한 결과를 사업장계시판과 Web Mail 상에 공개 게시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안전수준을 높여, 무재해 구미발전사업소를 이끌고 있다. 또한, 이는 연말에 우수부서와 모범안전공로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4. 맺음말

안전평가를 실시한지 5년이 넘는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가장 큰 것이 근로자 각자의 안전마인드가 높아져, 안전이 생활화가 될 만큼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킨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보호장구를 알아서 챙기는 모습과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Tool Box Meeting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안전 STX, 무사고 STX, 무재해 STX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평가를 업그레이드하여 구미발전소사업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도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한다. 

< 최종덕 기자 >